마른수건 쥐어짜다 끊어질 판

(욥기 10:1~22)

18.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19.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20.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21.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22.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마른수건 쥐어짜다 끊어질 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마른수건 쥐어짜다 끊어질 판'
옛날에 백성들은 보릿고개를 넘으며 먹을 끼닛거리도 없는 상황인데 임금님이 세금을 올립니다. 마른수건을 쥐어짜는 셈입니다.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고 해서 물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고리대금업자들이 빚을 회수할 때에 채무자의 사정을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라면 하나 사먹을 돈도 없는데 무조건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돈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장기매매까지 알선합니다. 또한 도박에 중독된 남편이 전업 주부인 아내에게 도박자금을 구해오라고 윽박지릅니다. 도박에 중독되면 '마누라까지 팔아먹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 지어서 볼 때에 '마른 수건 쥐어짜다 찢어질 판'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마음이 이 세상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이 스펀지에 스며들어가듯이 우리 마음이 땅의 것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볼 때에 마음은 배우자에게 스며듭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에 마음이 스며듭니다. 회사에서도 사업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고 재산을 바라보는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내 삶은 온통 물이 스며든 수건처럼 축축해진 상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삶 속에 스며들어간 마음을 빼내시기 위해서 삶을 쥐어짜십니다. 마치 치약을 사용할 때와 같습니다. 치약을 거의 다 쓰고 나면 칫솔대를 밀대 삼아서 치약튜브를 끝에서부터 밀어낸 후에 튜브를 돌돌 말아가면서 사용합니다. 이처럼 마음의 마지막 한

방울조차 삶의 어느 한 부분에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삶을 쥐어짜십니다.
욥의 상황을 보면 쥐어짜다 못해서 끊어질 판이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일이 안 되고 삶이 안 풀리고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스며든 삶을 쥐어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옷에 김치 국물이 떨어졌을 때에 당장 빨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만을 비벼서 빤 다음에 쥐어짭니다. 삶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삶의 부분 부분에 스며들어갔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에서 욥은 자신의 무죄를 항변합니다. 그런데 이 항변은 자신의 절대적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다보니까 이렇게까지 크고 무거운 고통을 당해야 될 만큼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언뜻 보면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하는 것 같지만, 속뜻은 욥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처럼 오류를 범하기라도 하셨다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것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오류를 범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그토록 크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기본 출발점은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기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유일하게 주도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자신의 주체성을 징역살이 시키듯이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계획하고 소원하고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의롭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고, 옳은 것을 그르다고 하는 것은 그른 것입니다. 그른 것을 옳다고 하면 그른 것이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면 옳은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자신의 죄인 됨을 인정하고 주체성을 징역살이시켜왔습니다. 이것이 욥의 의였습니다.
이러한 욥에게 고통이 주어지자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에 좌절감을 안겨주기 시작합니다.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실 때에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권자께서 주시는 고통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도록 도와줄 수가 없다는 절망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욥은 죄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해오며 살았기 때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절망감 속에서 마지막 돌파구를 찾으며 18~22절까지 다시금 죽음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최선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간청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른수건 쥐어짜다 끊어질 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욥에게는 열 명의 자녀가 있었고 막대한 재산도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명성이 있었고 많은 친구들이 욥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건강하게 살았고 훌륭한 아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스며들어간 욥의 마음을 짜내시기 위해서 자녀들을 데려가셨습니다. 재산에 스며들어간 욥의 마음을 짜내시기 위해서 재산을 없애셨습니다. 건강과 아내와 친구와 명성들에 스며들어간 욥의 마음을 짜내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없애셨습니다.

마치 한약 달일 때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탕약을 끓여서 베보자기에 돌돌 말아서 막대기를 끼워 있는 힘을 다해 쥐어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마음을 삶으로부터 짜내시는데 그 모습이 마른수건을 쥐어짜다 끊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욥은 죽음을 갈망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 삶에 대해서는 욥의 마음이 단 한 방울도 스며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음을 뜻합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음은 삶의 어느 부분이나 어느 대상에 대해서도 스며들 수 없게 될 때에 죽음을 소원하게 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늘이 아닌 이 땅에 대해서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단 한 방울도 마음이 스며들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이 삶의 현장에 대해서 마음이 스며들지 않는 것은 곧 삶으로부터 완전한 죽음을 동경하고 소원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전제되지 않으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누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으니, 쉽게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쉽게 구원을 받는 것은 곧 쉽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 세상 삶에 대해서는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않게 함으로서 쉽게 세상에 대한 죽음을 소원하는 단계가 전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상태는 곧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상태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아서 죽은 다음에 천당 갈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는 돈과 사업과 가족과 건강을 사랑하려 한다면 이 오해의 함정을 어떻게 제거하고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죽기를 바라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쥐어짜지 않으셔도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십자

가에서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은 곧 쥐어짬을 당하는 고통이 없이도 세상에 대한 마음이 한 방울도 스며들지 않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이 세상에 대해 죽었음을 고백할 때에, 내 마음은 한 방울도 삶으로 들어가서 축축하게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의 마음 상태를 욥과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 상태와 비교해보면서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할 때에 돌에 맞아 죽게 되었지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미움과 증오로 큼직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내려찍습니다. 학생들이 데모할 때에 경찰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처럼 멀리서 던졌던 것이 아니라 큰 돌로 내려찍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한 행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과 그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늘이라는 돌파구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삶을 쥐어짜는 가운데 돌파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 결과 죽음을 소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렇게 죽음을 소원하는 상태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 보좌를 보았던 것처럼 주님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육체가 돌에 찍힘을 당해서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얼굴은 천사와 같이 변할 수 있고, 자신을 돌로 치려는 자들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만약 스데반 집사님이 욥처럼 하늘을 보도록 허락 받지 못했다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먼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순간순간 생활화하고 고백함으로서 삶에 스며든 마음의 한 방울까지도 짜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한 방울의 마음도 남김없이 드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욥이 하나님을 삶의 주관자로서 인정했던 마음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일어났던 역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죽었을 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되어 마음이 하나님을 뵙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찬양하는 것은 곧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느낄 때에 감옥에 갇힌 상황에 대해서는 마음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삶에 스며들지 않아서 뽀송뽀송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늘기운은 내려옵니다. 그래서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욥은 아직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을 뵙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죽음을 동경하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

다. 그 고통이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른수건이 찢어질 정도로 쥐어짜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쥐어짜실 때까지 가지 말고 우리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삶을 쥐어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쥐어짜는 삶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소중하다는 것은 자녀라는 영역에 마음이 스며든 것입니다. 이렇게 축축한 삶의 영역에는 하늘기운이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축축한 상태에서는 나의 모든 노력과 계획은 헛발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질척거리는 삶에는 하늘 기운이 내려올 수 없고 내 마음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 마음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짜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뽀송뽀송해진 사업에 대해 하늘기운이 내려오게 됩니다. 욥이 인정했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고질병을 주시고 낫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 고질병이 십자가를 놓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전면적이고 철저한 고통은 임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생기는 걱정거리들은 십자가를 향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삶 전반에 걸쳐 내 마음을 탕약 짜내듯이 짜내는 것입니다.
마치 마른수건을 짜다 찢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루 이틀이 지나면서 점점 삶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욥이 죽음을 동경하듯이 이 세상을 빠져나오는 것이야 말로 가장 큰 은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어야만 하나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죽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동경하는 욥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뽀송뽀송해진 이 삶은 욥이 인정했던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대로 이끌려져 갈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고 누구를 만날 때에도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에 내 삶은 뽀송뽀송해질 정도로 마음이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삶은 하늘 기운을 받아들여 진행될 것인데 이게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욥이 쥐어짬을 당하여 죽음을 동경하게 되는 그 상태를 우리는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서 날마다 순간마다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